글로벌 미래도시 위한 국제외교 마무리

우범기 전주시장, 일본 시즈오카현지사 · 시장 면담… 시즈오카시와 교류의향서 체결

우범기 전주시장이 이끄는 전주시 대표단이 6일부터 4박 5일간의 일본 출장 일정을 마치고 10일 귀국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일본 시즈오카현을 방문한 우범기 전주시장 일행이 가와카쓰 헤이타 현지사 등 시즈오카현 관계자들과 상호협력을 주제로 한 환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이끄는 전주시 대표단이 지난 6일부터 4박 5일간의 일본 출장 일정을 마치고 10일 귀국했다.

전주시 대표단은 이번 일본 방문 일정에서 전주와 함께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시즈오카현의 중심도시 시즈오카시와의 교류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일본의 주요 기관들과의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우범기 시장은 방일 첫날인 지난 6일 시즈오카현청을 방문해 가와카쓰 헤이타 시즈오카현지사와 현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고위 공무원과 만나 지난 1년 간의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성과를 자축하며, 양국 문화중심지로서 지속적인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대표단은 이어 시즈오카현청 소재지이자 일본의 정령도시인 시즈오카시를 방문해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난바 다카시 시즈오카시장은 "전주와 동아시아로 맺어진 인연을 지속하고 싶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우범기 전주시장은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이 양 도시의 교류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면서 "대변혁의 시대, 문화뿐 아니라 4차 산업과 기후 위기, 청년 등 다양한 이슈 또한 논의하며 미래도시를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시즈오카를 떠난 대표단은 지난 2002년 이후 교류를 이어온 자매도시 가나자와시를 찾았다.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시장 간 공식 면담에서 양 시장은 20년 교류사를 회고하며 지속적인 우의를 다짐했다.

대표단은 가나자와시 일정 중 가나자와 도심 언덕에 약 11만2400㎡(3만4000여 평)의 면적으로 조성된 일본 3대 정원 겐로쿠엔과 가나자와성 등 '일본 속의 일본'이라 불리는 유네스코 공예창의도시 가나자와의 주요 명소를 둘러보며 정원과 건축물 등의 유지보수 등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했다.

끝으로 전주시 대표단은 일본의 고도(古都)인 교토와 나라로 이동해 교토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니조성과 고엔에서 고대 일본 도시의 구조와 배치 방식을 살피고, 일본 문화재 보존의 권위기관이자 궁내청 산하 독립행정법인인 국립문화재기구 나라문화재연구소를 공식 방문했다.

이 가운데 나라문화재연구소에서 대표단은 왕의궁원 프로젝트와 관련 문화재 보존관리시스템과 관광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해 청취하고,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출장을 통해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면서 "민선8기 전주의 지향점 중 하나가 글로벌 관광도시인 만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직원들이 신속한 조치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사진 왼쪽부터 마을버스 '바로온' 운전원 박감천 주임과 노진수 주임)

전주시설공단 직원들, 극단 선택 시민 구해

연기 새어 나오는 승용차 목격 신속한 구호 활동 벌여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 직원들이 신속한 조치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주인공은 마을버스 '바로온' 운전원 박감천(57) 주임과 노진수(25) 주임이다.

지난 10일 공단에 따르면 박 주임은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월드컵경기장 회차지에서 마을버스 운행을 마치고 쉬던 중 버스 옆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안에서 하얀 연기가 새어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선팅이 진해 안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자욱한 연기 사이로 운전석에 누워 있는 한 남성의 실루엣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 주임은 119 구급대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노 주임과 함께 신속하게 구호 활동을 벌였다.

소화기로 승용차 유리문을 깨부숴 차량 내부를 환기하고, 번개탄에서 보닛으로 옮겨붙은 불길도 소화기로 껐다.

발 빠른 구호 조치 덕분에 승용차 안에 있던 남성은 무사히 구조됐고, 병원 치료 도중 의식도 되찾았다.

이 남성은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버스 운전원의 신속한 조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에도 운전원 주대영(54) 주임이 의식을 잃은 70대 승객을 구한 바 있다.

방현주 마을버스운영부장은 "전주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바로온이 전주시민의 든든한 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색장수소충전소 준공

전주지역 네 번째 수소충전소…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전주시 송천동과 평화동, 삼천동에 이어 동남부권 색장동에 전주지역 네 번째 수소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지난 10일 완산구 색장동에서 김인태 전주 부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윤덕 국회의원, 배승균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색장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감사패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색장수소충전소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구축사업을 맡아 지난 3월 착공했으며, 국·도비 포함 약 30억 원이 투입돼 지어졌다.

특히 이 사업은 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시비분 7억5000만 원 전액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부담했다.

색장수소충전소는 오는 13일부터 본격 운영되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하루 50대 정도의 수소승용차가 충전할 수 있으며, 수소 판매가격은 1kg당 9900원이다.

시는 색장수소충전소 준공으로 전주 동남부권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임실·남원 방면 수소차 운전자들의 충전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주지역에서는 현재 민간기업인 효성중공업과 SK플러그하이버스가 각각 액화수소충전소 1개소를 구축 중으로, 오는 2024년 준공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전북대학교병원 간호사회, 사랑의 김장 김치 후원

전북대학교 병원 간호사회는 지난 11일 김장철을 맞아 위기 아동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전주시에 김장 김치 400kg(2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전북대학교병원 간호사회는 환자 사랑 후원과 취약계층 나눔 봉사, 전북대학교병원 발전 후원 등 환자 돌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단체로, 전북대학교병원 재직간호사로 구성돼 활발히 활동 중이다.

시는 전달받은 김장 김치를 아동과 가족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호사회의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35개 가정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전북대학교병원은 전주시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긴급성을 요하는 학대 피해 아동을 치료하고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광역 새싹지킴이 병원'(옛 아동학대 광역전담의료 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왔으며, 특히 전북대학교병원 간호사회는 지난 추석 명절에도 백미를 기증하는 등 위기 아동 가정의 일상 회복을 도왔다.

김현옥 전주시 아동복지과장은 "그간 새싹지킴이 병원으로서 지역사회 내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전북대학교병원에 감사드린다"면서 "현장에서 헌신해온 간호사님들의 노력과 마음을 모아 후원품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지역서점 지원 정책 우수 평가 받아

서점의 날 기념식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포상

책의 도시 전주시가 정부로부터 지역 서점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잘 수행한 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다.

시는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교보빌딩에서 열린 '제7회 서점의 날 기념식'에서 그간 선도적인 지역 서점 정책을 기획·수행해 온 점을 인정받아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정책 분야' 수상자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포상을 수상했다.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점의 날'(매년 11월 11일)을 맞아 서점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수행, 출판·유통의 균형 발전 등에 기여한 자와 기관을 시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서점 및 출판유통 활성화(3명) △우수 문화 활동 운영(2명)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정책(2명) 등 총 3개 분야 7명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시는 △지역서점 인증제 △도서 구입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 △전주독서대전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등 각종 연계 사업을 바탕으로 지역서점 경영 안정 및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전주시는 미래 독서생태계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지역서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지역 서점을 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